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재당신라인들의 요청

신라 헌덕왕 11년 2월.

당헌종이 죽기 1년 전의 전투였다. 당헌종이 지원하는 토벌군인 무령군 전군은 운주성을 총공격했다. 장보고의 군사도 선봉대로서 운주성 성문을 돌파했다. 오랫동안 포위당한 채 수성전을 펴던 치청절도사 이사도의 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낙양과 장안을 위협하던 이사도의 군사는 운주성을 내주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장보고는 요동 쪽으로 간 이사도의 산졸들을 추격하지는 않았다. 그들 역시 압록강 아래서 신라인과 함께 살았던 고구려인의 후손들이었던 것이다.

무령군이 운주성 공격을 늦춘 것은 신라원군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었다. 당헌종은 양주 절도사 조공(趙恭)을 신라에 특사로 보내 원군을 요청했던 것이다. 헌덕왕은 당헌종이 신라인 노비매매를 금지하라는 조칙을 내린바 있어 그에 대한 답례로 3만 명의 군사를 파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라원군의 이름은 순천군(順天軍)이었다. 원군의 부대명은

황제 즉 천자에게 순응한다는 뜻이었다. 헌덕왕은 순천군 장군으로 김웅원을 임명했다. 그러자 그때부터 김원웅은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3만 대군을 모병하는 데는 예상했던 것보다 시일이 더 걸렸다. 파병이 해를 넘기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순천군이 당항성에서 등주로 갔을 때는 이미 운주성은 함락되었고, 그것도 다섯 달이나 지난 신라 헌덕왕 7월이었다. 어찌됐든 신라원군이 제 역할은 못했지만 당헌종과의 약속은 지킨 셈이 되었고, 산동반도 해안에서 신라인 노비를 매매해왔던 당구들 일부를 소탕하여 공을 세운 측면도 있었다.



서주 무령군 본대로 돌아온 장보고는 운주성전투 때 부상을 당한 정년을 위로했다. 운주성 성문을 공격할 때, 정년이 이사도의 군사가 쏜 화살을 허벅지에 맞아 부상당했던 것이다. 끝이 뵈쪽한 화살촉은 생각보다 허벅지살 깊이 파고들어가 의원이 겨우 빼내기는 했지만 고름 때문에 새살이 잘 차지 않았다. 장보고가 말했다.

“동상, 허벅지는 으쩐가?”

“아이고메, 성님. 무르팍 뼈에 화살을 맞았으믄 큰일 날 뻔했지라. 걸지도 못허는 다리병신이 되야분다믄 지 앞날이 어처케 되겄소? 지 꿈은 물거품멩키로 꺼져불겄지라.”

“고만치 다쳤응께 망정이지, 다행이여.”

“원군이 왔으믄 이 고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겄소.”

“아까 침에 병마사헌테 들었는디 원군이 등주에 오기는 했등마.”

“참말로 빨리도 와부렀소잉. 운주가 우리 무령군에게 넘어온 지 몇 달이 지나부렀소.”

“우리 원군이 흑수바다 당구덜을 깨갓이 청소해부렀을 거 같은디 고것만도 당이나 신라 입장에서서는 이득이여.”

“성님은 자나 깨나 당구덜 토벌이요잉.”

“그라고 이익이 또 하나가 더 있제, 동상이 맞춰봐.”

“아, 고것 모르믄 정년이 아니지라. 거, 장사해서 부자 되는 것 아닌게라?”

“인자, 동상이 내 오장육보는 물론이고 머릿속까지 훤히 다 보고 있네, 그러.”

장보고는 무령군 군중소장으로 계속 남아서 병마사 같은 대장군이 되겠다는 야망은 없었다. 정년이 의원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만 무령군에 남아 있을 생각이었다. 정년은 허벅지에 찬 고름이 다 빠질 때까지는 무령군 의원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3일 뒤였다. 오전에 서주 절도사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고 군막으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였다. 일조 신라촌 부촌장이 찾아왔다. 그렇지 않아도 장보고와 정년은 은인이라고 여겼던 촌장 김시방의 안부가 궁금했던 차였다. 그런데 부촌장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장보고가 먼저 말했다.

“내가 장보고요.”

“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은제 돌아가셨는게라?”

“당항성에서 돌아오시다가 인당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한 것 같습니다. 신라 경비선이 발견했지만 선원은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메!”

정년이 큰소리로 탄식했다. 장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탐진에 청자기술을 전한 뒤 큰일을 할 분으로 믿었는데 침몰사고를 당했다고 하니 비통하기만 했다. 부촌장이 예를 갖추어 말했다.

“평소에 촌장님께서 군중소장님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라촌에서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조에서 서주까지는 먼 거리인데 부탁하실 일이 있어 오신게라?”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일조 신라촌을 이끌어 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장보고가 말했다.

“비통해요. 촌장님이야말로 큰일을 허실 분이었지라. 나는 촌장님뎡기로 큰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돌아가세요.”

“촌장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일조 신라촌을 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보고의 의사를 확인한 일조 신라촌 부촌장은 바로 돌아갔다. 장보고와 정년은 무령군 군막 부근에 있는 절로 갔다. 마침 사미승이 두 사람을 요사채로 안내했다. 요사채 의자에 잠시 앉아 있자 주지스님이 나타났다. 주지스님이 군복을 입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예, 이분은 무령군 군중소장이시그만요.”

“오늘 우리 절에 찾아온 군사들 중에 가장 높은 분입니다.”

장보고가 용건부터 말했다.

“스님, 지 은인이 돌아가셨그만요. 지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시면 돌아가신 망자께서 극락왕생하실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니 틀림없습니다.”

장보고와 정년은 주지스님을 따라 극락전으로 따라 들어갔다. 장보고는 거대한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무아미타불을 외기 시작했다. 정년은 다친 다리 때문에 선 채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었다. 두 사람의 창불(唱佛) 소리가 우렁차게 법당 밖까지 울려 퍼졌다. 한 나절이 지나자 주지스님이 다시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망자께서 극락왕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셔도 됩니다.”

순간 장보고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을 무겁게 했던 비통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망자가 된 김시방도 극락으로 가는 걸음이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보고는 신기한 경험을 확인이라도 하듯 정년에게 물었다.

“동상,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났더니 맘이 개뽀네, 글고 촌장님도 내 맘 같은 것 같고. 동상도 그런가?”

“맘이 지도 그랑만요. 그라고 본께 이짜 절 스님덜은 모다 관세음 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외고 있그만요.”

정년의 말은 사실이였다. 등주에서 명주에 이르기까지 신라원이나 당나라 사원은 대부분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천태종 계열이였다. 관세음보살이 힘들게 사는 양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죽은 망자들에게는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천태종 종풍이 바다를 면한 산동반도와 명주, 항주 일대에 퍼져 있었다. 돌변하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천태종 종풍이였다. 군막으로 돌아오면서 정년이 말했다.

“성님, 지는 참말로 아습그만요.”

“뫼이 아습다는 말인가?”

“촌장님이 살아 겨셔야 우리 집에 청자기술이 전해질 거 아니요? 공께 아습지라.”

“나도 마찬가지여. 내가 촌장님께 말썸드렸제. 탐진에 청자기술이 전해진다면 당나라에 탐진토기나 탐진청자를 팔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여.”

정년이 못내 아쉬워했다.

“당나라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월주청자를 못쓰게 헌께 우리에게는 기회인디 말어요. 우리가 청자를 맨글어 당나라 천하에 풀른 되는다.”

“토기가마를 갖고 있는 정족장님 아들 같은 말이네. 걱정허지 말소. 아무도 안 허문 나라도 해야제 벨 수 있겠는가.”

“성님이 참말로 헐라고라?”

“근디 시방은 때가 아니네. 황제 폐하께서 노비매매금지 조칙을 내렸는디 고것만으로는 약허제.”

“뭇 조칙이 또 내려져야 헌다요?”

“월주 청자가마 신라노비덜을 델꼬 갈라든 황제께서 노비해방령을 내려주셔야 맘대로 델꼬 갈 수 있겠제. 뭇 수를 써서라도 고것을 해야 가능헌 일이당께.”

“아따, 성님은 참말로 겁나게 앞서 가요. 어차든지 쪼끄만 신라가 살 길은 우리가 잘 멩그는 것을 큰 나라에 많이 풀아야 되겠지라.”

“나는 대구소 향리 나리나 동상 아부지인 정족장님을 절대로 잊어불지 았을라네. 아마도 월주 신라노비를 동상 마실로 보내는 것이 은혜를 갚는 방법일 것이네.”

장보고는 김시방이 월주의 청자기술을 신라로 가져가 주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신라노비 도공들을 마음대로

손쉽게 데리고 가려면 당황제가 조칙으로 노비해방령을 내려줘야 할 텐데, 그런 순간이 오려면 신라 사신이 바다를 건너와서 진언하고 간청해야 하므로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장보고를 찾아오는 신라인들이 차츰 많아졌다. 일조 신라촌 부촌장이 다녀간 며칠 뒤에도 등주 신라소 군관 장영이 말을 타고 왔다. 정년이 거만하다고 투덜거렸지만 장보고는 믿음이 간다고 했던 바로 그 군관이었다. 장보고가 반갑게 맞이했다.

“장 군관, 무신 일로 여그까정 와부렀는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 보시게.”

“등주에서 산동반도에 있는 신라촌, 신라방, 신라소 분들이 다 모여 결의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뭇을 결의했다는 말인가?”

“산동반도에 와 있는 신라인 우두머리로 군중소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정년이 소리쳤다.

“성님, 때가 와분 것 같으요. 뭇을 망설이시요.”

“내가 갈 신라소는 어디에 있는가?”

“군중소장님께서 가시는 신라소가 산동반도 대표신라소가 될 것입니다.”

정년이 장보고를 쳐다보면서 또 소리쳤다.

“성님! 가리포허고 비슷헌께 적산에서 살고 잤다고 험 말썸을 잊어부렀소?”

장보고가 선뜻 결정하지 않고 있자, 장영이 말했다.

“신라소는 등주에도 있고, 적산에도 있고, 일조에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가실 수 있습니다.”

“간다면 적산으로 갈 것이네. 다만.”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주 절도사님 호의로 무령군에 들어왔으니 떠날 때도 절도사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할 것 같네.”

“절도사님은 저와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등주 절도사님 편지를 이곳
절도사님께 몇 번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왔을
때도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용건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장영은 용의주도했다. 장보고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했다.
일전에 왔던 일조 신라촌 부촌장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절도사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시든가?”

“때가 되면 무령군을 해체할 것인데 잘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령군이 며잖아 해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치청절도사 이사도의 군사를 궤멸시켰으므로 토벌군으로서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바로 군사들을 해산시키지 못한 것은 그들의 일자리가 당장 마땅찮아서였다. 서주 관군으로 편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얼마의 군사는 다른 절도사 휘하의 관군으로 가거나, 운하 준설작업이 있는 곳으로 파견해야 했던 것이다.

“성님, 지 걱정 말고 가시랑께요. 지는 여그 의원허고 잘 맞는 것 같은께 여그 더 있을라요.”

“동상 상처가 아물 때까지 여그 있을라네. 공께 그런 소리 말어.”

그제야 장영이 무뚝뚝한 표정을 풀고는 미소를 지었다.

“군중소장님! 적산 신라소에 오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으쨌든 나도 절도사님을 뵈야졌그만.”

말에 올라탄 장영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군막 저편으로 사라졌다. 순간,

장보고는 정년과 장영이 자신을 도운다면 무엇을 하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다만 정년의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당나라에 함께 온 정년과 한 순간이라도 헤어져 있다는 것은 장보고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장보고가 정년에게 말했다.

“동상, 절도사님을 쫓간 뵙고 와야겠네.”

“말씀 잘 드리세요. 성님을 붙잡을지 모른께.”

“그런 일을 읊을 것인께 지달리고 있께.”



장보고는 무령군 군막을 나와 서주 관아로 갔다. 마침 절도사는 당전에서 관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절도사가 장보고를 보더니 호탕하게 말했다.

“군중소장! 어서 오시게.”

“절도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그만요.”

그러자 절도사가 옆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아, 그 얘기로군. 장 군관한테 들었네. 그대를 나는 그냥 보내주지는 않겠네.”

“무신 말씀입니까요?”

“놀라지 말게. 나는 황제께 신라사신의 우두머리를 대사라고 호칭하듯 그대에게 대사라는 벼슬을 제수하시라고 주청을 드리겠네.”

“당장 떠나지는 않겠습니다요. 정년 부장의 부상이 나올 때까지는 무령군에 남아 있겠습니다요.”

“잘 했네. 무령군은 내년이나 해산할 것 같네.”

장보고는 절도사가 술자리에 합석을 권유했지만 사양했다. 문득 군막 밖의 산자락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지난번처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외고 싶었다. 기도를 한 나절 했을 뿐인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계속>